

# 작가 현지 리서치·작품 운송 등 고려 연기 결정

##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내년 2월로 연기

코로나 19 여파로 세계적인 미술축제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개최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진행했던 (재)광주비엔날레는 10일 제 13회 광주비엔날레를 2021년 2월26일부터 5월9일까지 모두 73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전시 및 홍보 추진 일정 및 계획 등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세를 주시하며 행사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당초 오는 9월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13회 비엔날레는 5·18 40주년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66일간 진행됐던 전시 일정을 대폭 연장, 87일간 관람객들을 만날 계획이었다. 제13회 비엔날레는 예정보다 일정이 다소 줄었지만 기존 비엔날레보다는 1주일 정도 길어졌다.

광주비엔날레가 연기된 것은 제3회에 이어 두 번째다. 3회는 1999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천년의 시작(2000년)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1년 연기됐었다.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예술 감독과 지속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전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미술계의 동향을 주시해낸 재단은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수준 높은 전시 구현을 위해 6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국제 미술계 교류 장이자 플랫폼으로서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각국 예술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19로 지구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재단 또한 전시를 연기에 극복과 회복의 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 ‘코로나19’ 여파... 일정·계획 재수립

2021년 2월 26일~5월 9일, 73일간 “국제전시 위상, 수준높은 전시 구현”

## 5·18 40주년 특별전도 일정 수정

필름전·아르헨티나전 내년에 개최

시립미술관 리암 길릭전도 동반 연기

특히 광주비엔날레 특성 상 참여 작가의 현지 리서치로 진행되는 신작의 제작 여건, 해외 작품 운송 문제, 해외 우수 미술계 관계자의 초청 건 등도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전시 연기를 통해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축적한 위상과 고품격 전시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계적인 미술축제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현재 5월 개최 예정인 베네치아 건축비엔날레는 8월로, 9월 열리는 상파울루비엔날레는 1개월 늦춰졌으며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헬싱키비엔날레(6월), 리버풀비엔날레(7월), 자카르타비엔날레(11월)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데프네 아야스 예술감독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와 대응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행사를 미뤄야만 했다”며 “팬데믹은 우리들을 지탱해온 가치관과 절차, 행위, 제도 등을 시험했고,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취약해진 지금 집단이동과 격리가 상충되는 현재 공공의 문화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 연



올해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 19 여파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사진은 2018년 열린 광주비엔날레 전시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기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미술 행사로서 여러 문제와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기획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념전 ‘메이투데이(MaytoDay)’도 일정이 대폭 수정됐다.

일단 올해 일정 중 4월에서 6월로 한차례 개최 시기를 연기했던 독일 필름전과 오는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시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또 도시건축전시관과 아트선재센터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전시는 아트선재센터에서만 개최한다. 반면 8월 광주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그대로 진행되며, 내년 5월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역시 예정대로 추진한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와 연계해 진행했던 세계적인 아티스트 리암 길릭전 역시 이번 비엔날레가 연기됨에 따라 내년에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 광주의 오월, 민주의 합성을 노래하다



5월 한달간 열리는 ‘오월의 노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오월의노래에 참여한 광주노동자노래대연합의 무대. <오월의 노래 제공>

### <5> 유튜브로 만나는 ‘오월의 노래’

40개팀 참여 무관객 온라인 공연 ‘오월어머니’·‘세세세’ 특별 출연

5·18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공연을 선보인다. ‘오월의 노래’는 80년 이후 폭압에 저항하는 삶의 가치를 노래하는 전국의 음악인들이 광주에 모여 자발적으로 이끌어 온 ‘거리 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무대다. 지난 2015년 다시 시작된 ‘오월의 노래’는 매년 5월이면 80년 5월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한달 동안 공연을 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월 광장을 잠시 떠나 무관중으로 공연을 진행, 공연실황을

유튜브 채널 ‘오월의 노래’에 공개해 전국의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공연은 코로나19로 광주를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의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온라인 공연을 통해 광주의 오월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오월의 노래’는 지난 4월 27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에서 첫 녹화를 시작했으며 영상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 18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오월 항쟁기간 동안에는 하루 두 팀의 공연이 업로드 될 예정이다.

올해 무대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총 40팀이 오르며 올해는 통일조곡과 민족을 노래하는 ‘우리나라’,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희망세’ 등이 함께한다.

이밖에 연영석·지민주·박문옥·류의남·김가영·이정열·김현성·손현숙·손병휘·문진오·박성환·이지상·김영태 등이 출연하며 시노래 프로젝트 블루문, 희망세, 소리터레, 듀오꽃향, 광주흥사단합창단,

(사)내뽀소리민족예술단, 구름비나루, 광주노동자노래대연합 등도 무대에 오른다. 또 오월 광주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보듬으며 오월정신을 전해주는 ‘오월어머니’와 세월호를 기리는 광주 노래모임 ‘세세세’가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공연 영상 50여개가 업로드 되었으며 지금까지 박종화를 시작으로 강형원·이선·주하주·이진우 등을 비롯해 등걸, 흥, 프롤로그, 인디언수니, 국도1호선 등이 무대를 꾸몄다.

박종화는 첫날 무대에 올라 ‘지리산’, ‘학살’, ‘저 창살에 햇살이’를 불렀고 강형원은 ‘영산강’, ‘불행아’, ‘귀뚜라미’, ‘부치지 않은 편지’ 등으로 관객과 만났다. 또 주하주 ‘남광주에 나는 가리’, 이진우 ‘저 먼곳에 날들’, ‘언는 오나라’, 흥 ‘아침이슬’,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등의 영상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지정속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